

# 과일 풍년... 똑똑 떨어지는 과일값에 농민들 한숨

올해 적은 강수량과 풍부한 일조량 덕분에 '가을 과일'이 더욱 맛있어졌다. 땅속에 뿌리를 둔 과실은 물을 지나치게 품으면 품질이 떨어지고 가뭄에 햇볕을 듬뿍 받으면 당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풍년으로 가격을 떨어져 농민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11일 "지난달 30일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달 출하용 과일의 예상 품질이 지난해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농협중앙회 광주공판장에 따르면 사과와 배는 2만~4만(이하 도매가기준, 1박스), 배 2만~4만 5000원, 귤 15000~2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0~30%가량 하락한 가격이다.

생산물량도 많지만 소비가 이뤄지지 않아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값이 싸지만 예년에 비해 과일이 맛이 없는 건 아니다.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후지 사과는 당도와 빛깔이 작년보다 양호한 비율이 각각 79.6%, 64.7%였다. 당도는 작년보다 나쁜 비율이 0.6%에 그쳤다. 고온 탓에 과실 크기는 다소 작아졌다. 후지 대과(大果) 비율은 13%로 작년(23%)보다 10%p 낮다.

재배면적이 넓어졌고 작황 호조로 사과나무에 달린 열매가 증가해 전체 사과 생산량은 작년(47만 3000t)보다 10.1% 많은 52만3000t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 사과·감귤·단감 등 태풍 없고 일조량 풍부

### 재배면적 늘고 작황 호조 값 20~30% 폭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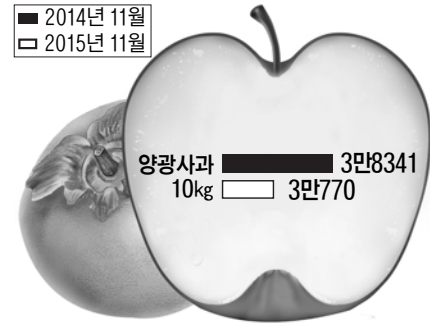
7~10월 사과 출하량도 19만1700t으로 작년 동기(18만3100t)보다 4.7%, 평년 동기(16만1900t)보다 18.4% 많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양광 사과 상품 10kg의 가격시장 평균도매가격은 작년 10월(3만8341원)보다 19.7% 하락한 3만770원이었다. 평년 가격인 3만3881원과 비교해도 9.2% 낮은 수준이다.

노지 감귤 생육 상황과 품질도 좋은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과 달리 생육 기간에 강한 비바람이 불지 않았고 일조 시간이 길어 병해충 발생이 감소했

## 과일 가격 (단위: 원)

■ 2014년 11월  
□ 2015년 11월



올해 '가을 과일'이 더욱 맛있어졌지만 풍년으로 가격이 떨어져 농민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 광주시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물시장에 사과, 배 등이 쌓여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다. 11월 출하용 노지 감귤은 햇볕을 많이 쬐 덕분에 당도가 전년보다 높고 태풍이나 바람에 따른 상처가 적어 외관도 양호하다. 작년에는 잦은 강우와 풍상으로 부패하거나 상처가 난 감귤이 많았다.

특히 감귤의 새콤달콤한 맛을 좌우하는 당산비(산함량에 대한 당도 비율)는 작년보다 좋은 비율이 93.4%에 달했다.

추산지인 서귀포지역 작과 수가 늘어 평균 과실 크기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54~58mm 'S과'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단감도 올해 생육 상황이 양호한 가운데 날씨가 좋아 병해충 발생도 전반적으로 적었다.

강우량이 적고 일조량이 커 작년보다 당도가 좋은 단감 비율이 73.8%였다. 일조 시간이 길고 병해충이 감소한 영향으로 외관과 빛깔도 우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는 올해 흑성병과 나방류, 깍지벌레 등 병해충 피해를 많이 입었다. 그럼에도 수확기 일조량 증가로 당도는 11월 출하 배의 92.1%가 작년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태풍이 대부분 우리나라를 빙거간데다 맑은 날이 많고 비가 적어 과일이 잘 자랐기 때문이다.

다만 감귤, 단감, 배는 성목(成木) 면적 감소 등으로 올해 전체 생산량이 작년보다 5%, 7%, 14% 줄어든 것으로 농업관측센터는 전망했다. 생산량 감소에 따라 도매가격은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으로 형성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새농민 광주시회 김용안씨 농업인의 날 대통령 표창

농협광주본부(본부장 이근)는 11일 "새농민 광주시회 김용안(광산구 송학동 60)씨가 제20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창조농업부유공 농업인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0년간 양송이버섯을 재배해 왔으며, 해외수입에서 탈피한 한국형 양송이버섯 발효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에 보급하여온 선진농업인이다.

농협중앙회가 선정·육성하고 있는 선진농가모임인 광주시 새농민회 회장직을 지난 2013년부터 역임하며 지역사회 후계농업인 육성에 앞장섰다.

김씨는 "건강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신을 밝히며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며 향후에도 후계농업인 육성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앞장서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aT, 김 수산물 수출 주력품목으로 키운다

### 장보고 프로젝트 추진

### 올 수출 3억달러 예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1일 "김 수산물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하는 '장보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은 2010년 처음으로 수출실적 1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5년 만인 올해 3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1~9월 김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2억301만6000달러)보다 9.61% 늘어난 2억2251만8000달러다. 주요 수출국은 미

국, 중국, 일본, 태국, 대만 등이다.

식습관이 다른 외국인을 겨냥한 스낵 김, 어린이용 김 등 다양한 신상품을 개발하고 중국 내륙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외 마케팅에 힘쓴 결과라고 aT는 설명했다.

aT는 올해 김 수출 3억달러를 달성하고 장기적으로 수출 실적을 5억달러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해외 대형 유통업체와 손잡고 김 특별판촉 행사를 열고, 프랑스 파리와 중국 상하이(上海) 등에서 열린 한국 수산식품 행사에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한 온라인 마케팅, 중국 통관 지원, 현지 시장에 최적화된 수출상품 개발 등으로 김 수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aT는 김 3억달러 수출을 위해 9일 김산업연합회, 수출협회 등 관련 단체와 목표 달성방안을 협의하고 수출 확대 결의를 다지는 간담회를 열었다.

김재수 aT 사장은 "김 수출 3억달러를 달성하면 국내 김 생산량의 약 36%를 수출하는 것으로 국내가격 지지와 함께 여민 소득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

## 주부 48% "김장 절임배추 쓰겠다"

소금이 절인 상태로 파는 '절임 배추'를 사서 김장을 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2~8일 30대 이상 주부고객 821명에게 통배추와 절임배추 가운데 어떤 김장 재료를 선택할 것인지 묻자 48%가 "절임 배

추를 쓰겠다"고 답했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11~12월 김장용 배추 매출 가운데 절임 배추가 차지하는 비중도 44.4%에 이르렀다. 절임 배추의 연도별 비중은 ▲2010년 28.5% ▲2011년 32.4% ▲2012년 38.2% ▲2013년 42.3% ▲

2014년 44.4%로 해마다 커지는 추세이다.

그만큼 요즘은 주부들이 김장 재료를 구매할 때 '편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주부들은 올해 예상 김장 비용 수준을 평균 26만8600원(4인가구 기준) 정도로 추정했다.

홈플러스는 이 같은 절임 배추 수요를 반영, 22일까지 '해남산' 절임배추를 예약 판매한다. /연합뉴스

## 보성녹차 'Tea-Up' 개발 생수병에 꽂아 쉽게 마신다

생수병에 녹차가 담긴 뚜껑을 꽂아 마실 수 있는 이색 제품이 출시됐다.

보성군은 누구나 쉽게 보성녹차를 마실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인 '보성 Tea-Up'을 개발해 판매에 들어갔다.

'보성 Tea-Up'은 일반 상점에서 판매하는 생수병에 꽂은 뒤 녹차가 우려나오면 마실 수 있는 제품이며,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있을 것으로 유동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녹차를 시원하게 즐기 위해 생수병에 티백을 통째로 넣는 경우 시간이 지나면 쓴맛이 나는 단점이 있다.

이번에 출시된 보성 Tea-Up'은 병에 녹차 티백을 붙여 우린 뒤 병을 세우면 물과 녹차 티백을 자연스럽게 분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성 Tea-Up'은 다양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데, 블렌딩한 제품인 '다도락의 강황 녹차' '녹차' '우영티'의 4개 제품과 백엔콜 발효 차의 9988티를 출시했다.

한편 이 '보성 Tea-Up' 제품은 보성군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차 가공업체와 손잡고 생산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 곡성, 전원주택

- 곡성군 입면 송전리 233-6번지
- 대지 72평, 건물 28평(실평)
- 1층 단독 주택, 2012년 준공
- 광주에서 30분 / 금호타이어에서 1분
- 6500만원

### 화순, 전원주택부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동면방향, 광덕교차로에서 5분
- 대지 328평, 33필지 중 1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군청, 12월말 완공)
- 매매-1억6400만원(조정가)

### 수기동, 오피스텔

- 광주천 방향, 29평
- 16층, 주거겸 사무실, 전체수리
- 보5백만원에 월 35만원 임대중
- 대출 3000만원 가능
- 매매-5500만원

## 싸고 좋은 물건, 추천합니다!

주인직거래 H.010-6839-5900

### 해남, 전원주택

- 해남군 북평면 오산리 987-3번지
- 건물 28평(실평), 대지 53평(지분)
- 1층 단독주택, 2013년 10월 준공
- 2차선 도로접, 저운창고, 판매시설
- 매매-6500만원

### 금호리조트/회원권

- 법인, 등기제, 35평, 연 30박
- 분양가 3500만원
- 화순 / 제주 / 충무 / 설악
- 아산스파 / 금호패밀랜드 공유
- 매매 - 2500만원

### 금호동, 근린상가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 서광병원 4거리 코너, 구/7080자리
- 7층 701호, 120평, 전망최고, 4면유리
- 용 3억 6천만원, 모든업종 오픈 가능
- 매매 - 5억 6천만원

## 경매투자자

▶투자 하실 분! 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비법 배우실 분!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오천경매 H.010-3605-5000